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22. 3. 23.(수) / 총 9매(본문6, 참고3)	
담당 부서	해외건설지원과	담 당 자	• 과장 안진애, 사무관 김병진·곽인영, 주무관 김송이·지영근 • ☎ (044) 201-3293·3530, 3536·3534	
보 도 일 시		2022년 3월 24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 23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우리 기업들의 해외건설 진출 지원 한-인도네시아 인프라 협력 강화 방안 모색

- 윤성원 제1차관, 인도네시아 주요 인사와 수도이전 협력 강화 등 논의 -

-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신수도부, 교통부, 및 공공사업주택부 장·차관급 면담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.
-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'19년부터 G2G협력을 통해 신수도 스마트시티 계획 및 개발 종합계획 등 분야별 계획 수립을 지원 중에 있으며,
 - 철도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 최초의 경전철(LRT)인 자카르타 LRT 1단계 건설사업에 참여한 바 있으며, 발리 경전철(LRT) 사업, 자카르타 경전철(LRT) 2·3단계 사업 및 도시철도(MRT) 사업 등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.
 - 인도네시아는 우리 건설기업들의 해외건설 누적수주액이 243억불(누적 9위)에 달하는 중점 협력 국가이자 인구 2억 7천만명(세계 4위)에 달하는 인구 대국으로서,

-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사업, 도시철도·경전철 건설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국가로, '19년에는 우리 건설기업의 수주 금액 1위(37.4억불) 국가를 기록한 바 있다.

<<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및 교통인프라 협력>>

-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필두로 한 인프라 협력 대표단은 밤방 수산토노(Bambang Susantono) 신수도부 장관, 존 웹피 웨티포(John Wempi Wetipo) 공공사업주택부 차관 및 카리아 수마디(Budi Karya Sumadi) 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 및 철도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.

【 신수도부 장관·차관 면담 -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협력 논의 】

- 3월 22일 화요일(현지시간), 윤성원 제1차관은 정부 고위급 인사(장·차관급)로서, 밤방 수산토노 신수도부 장관 및 도니 라하유 차관을 처음으로 면담하여 수도이전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.
- 인도네시아는 급속한 도시화 및 인구증가로 인한 교통체증, 식수 문제 등 해소를 위해 수도 이전을 추진 중으로,
 - 금년 1월에 신수도법이 국회 통과(1.18일)되고, 3월초 정부 부처로 신수도부(장관급) 신설하는 등 신수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
- 윤 차관은 한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경험을 공유하며, 양국간 활발한 교류·협력을 확대하여 인니의 신도시 건설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.
- 이와 별도로, 박병석 국회의장은 조코위 대통령 면담시(3.20) 한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 바 있으며, 당시 조코위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세종시를 방문하고 싶다고 말한 바가 있다.

- 이와 관련하여 윤 차관은 밤방 수산토노 신수도부 장관에게 조코위 대통령 방한 시 함께 오기를 건의하며, 그 전이라도, 국토교통부,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기관과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신속히 논의하자고 제안하였다.
- 그간,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와 '19년 11월 「수도이전 및 개발에 대한 기술협력 업무협약(MOU)」을 체결하여,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지속 협력 중인 상황이다
- K-City Network(KCN) 프로그램을 통해 신수도 건설과 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한 인니정부에 컨설팅*을 지원하고, ODA 자금*을 활용(EIPP)하여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을 위한 다양한 계획 수립을 지원 중에 있다.

* MOU 체결('19.11) 이후 신수도 스마트시티 기본구상('20.7~'21.5 / KCN), 신수도개발 종합계획('20.11~'21.9 / EIPP) 및 2차 개발계획('22.2~'22.11) 등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수도 이전 지원 중

【 공공사업주택부 차관 면담 -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협력 논의 】

- 21일(현지시간), 공공사업주택부 차관과의 면담에서도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행정수도 건설 경험을 공유하며, 우리 기업의 뛰어난 스마트 시티 건설 기술 등이 인도네시아 신수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양국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하였다.
- 또한, 향후 사업계획이 보다 구체화되어 시공 단계에 이르면, 인도네시아의 수도이전 건설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.

【 교통부 장관 면담 - 국토교통 ODA MOA 체결, 철도 사업 논의 】

- 21일(현지시간), 윤 차관은 부디 카리아 수마디 교통부 장관과의 면담 시, 양국의 긴밀한 교통 협력*을 기반으로,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,

* '14년부터 다양한 국토교통 ODA 사업을 지원하고, '17년에는 양국간의 교통 협력 MOU 체결 등

-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도 체계적인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건설기업이 있는 한국과의 지속적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로 화답하였다.

○ 또한, 국토교통부는 한국의 우수한 대중교통 시스템 노하우를 공유하고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고자, ODA 사업을 통해 버스터미널 현대화 시범사업 및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(BIMS) 등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 중으로,

- 금번 방문 시, 윤 차관은 인도네시아 부디 스티야디 육상교통청장과 동 사업과 관련한 MOA를 체결하였다

* 자카르타 버스정보 관리시스템(BIMS) 기본설계 및 시범사업('20~'23), 인도네시아 버스터미널 현대화 마스터플랜(MP) 수립 및 시범사업('20~'23) 등 '14년부터 인도네시아 국토교통 ODA 총 212.2억원 지원

□ 아울러, 윤 차관은 인도네시아의 첫 번째 경전철(LRT)로서 국가철도공단과 한국 기업이 참여하여 건설한 자카르타 경전철(LRT) 1단계 노선 현장 방문에 이어 현지 건설기업과 간담회에 참석하여,

○ “지난 2년간, 코로나-19 등 녹록치 않은 수주 환경에서도 300억불 이상의 수주를 이어간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노력이 올해에도 빛날 수 있도록, 정부 차원에서도 지속 노력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<< 터키 교통인프라 협력 및 차낙칼레 대교 개통식 참석 >>

□ 한편, 윤성원 제1차관은 3월 17일 터키를 방문, 엔베르 이스크루트(Enver Iskurt) 터키 교통인프라부 차관과 면담을 통해 양국 간 인프라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,

- 이를 계기로,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형사업(PPP) 지원 공공기관인 한국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)와 터키 인프라투자청(AYGM) 간 인프라 투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하여, 양국간 유망 인프라 사업 발굴 및 공동 사업개발 등을 협력 추진키로하는 등 양국 기업의 사업 참여 촉진 기회를 마련하였다.
- 또한, 우리나라가 터키와 함께 협력 건설한 세계 최장 현수교인 차낙칼레 대교 관련 터키 정부에서 마련한 개통식(3.18)에 참석하여 우리 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,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의 자리를 가졌다.
 - 차낙칼레 대교는 총 사업비 약 37억불, 건설·운영(16년)의 대형 투자개발형사업(PPP)으로, 우리 기업(DL이엔씨, SK에코플랜트)과 터키 기업(Limak, Yapi Merkezi)이 모두 동등하게 25%의 지분을 갖고, 만장일치의 의사결정 구조로 추진되었다.
 - 본 교량의 경간 2,203m는 터키 공화국이 수립된 100주년(2023년)을 의미하고, 주탑 318m는 터키의 대 연합국 승전 기념일(3.18일)을 상징한다.
 - 차낙칼레 교량은 주탑간 거리 세계 최장, 주탑 높이 세계 최고의 현수교를 우리의 기술력으로, 코로나-19 상황에서도 건설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.
 - * 교량의 경간(주탑-주탑 거리) 2,023m, 주탑 높이 318m로서 일본의 아카시 해협 대교의 최장 경간(1,991m) 기록을 갱신
 - 동 프로젝트는 DL이엔씨, SK에코플랜트 뿐만 아니라, 다양한 대형·중소 기업들이 힘을 모아 건설*한 수출협력 모델이다.
 - * 포스코(주탑상판 강판), 고려제강(케이블), 삼영엠텍관수E&C·티이솔루션 등(케이블 부속자재, 진동제어장치 등)
- 윤 차관은 차낙칼레 대교는 양국간 인프라 협력 잠재력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서, 우리 건설기업들의 해상 교량에 대한 우수한 기술력과 수출 금융기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양국의 협력 투자개발형사업(PPP)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기념비적 프로젝트 라면서,

- 앞으로도, 우리 기업이 다양한 해외건설 수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
해외건설지원과 김병진 사무관(☎ 044-201-352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

자카르타 LRT 2, 3단계 사업

□ 사업 개요

- (발주처) JakPro(자카르타 자산관리공사)
- (사업비) 약 19.6억불
- (사업비) 30년(건설 5년, 운영 25년)
- (사업구간) 2단계(12.5km, 역사 10개소), 3단계(10.5km, 역사 6개소)
- (추진현황) 현재 사업타당성조사*(F/S) 진행 중('21.6~'22.3)

* 삼일회계·KRTC·도화·태평양 수행(한국수출입은행 지원 사업)

□ 노선도 및 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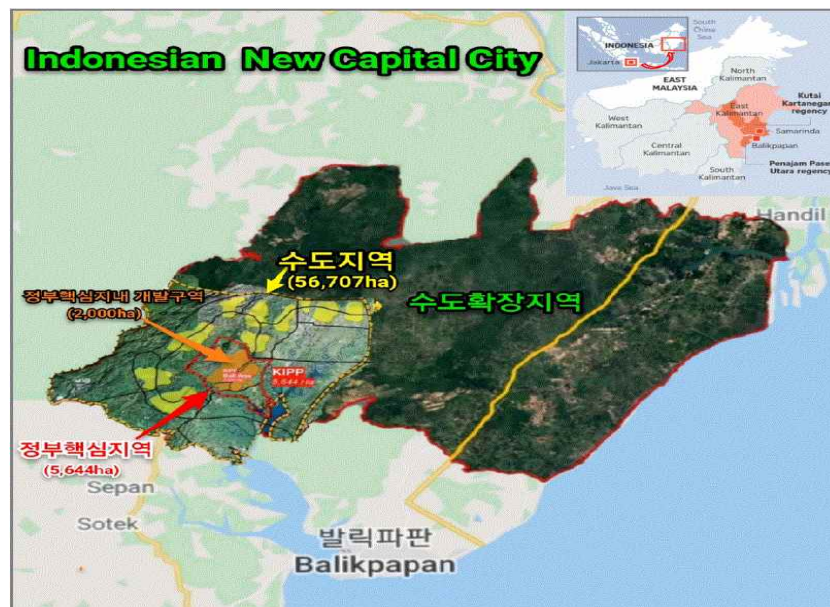
□ 추진배경

- 자카르타 과밀화에 따른 교통체증, 식수부족 등 도시문제 발생으로
신수도 이전 추진 발표('19.8, 조코위 대통령)
- * 국토의 6.7%인 자바섬(자카르타)에 인구의 56%, GDP 기여도 58% 집중

□ 주요내용

- (개요) 자카르타는 경제·금융 중심지로, 신수도는 행정중심으로
육성하되, 現 자원의존 경제를 제조·서비스업으로 전환 추진
- (위치) 보르네오섬에 위치한 칼리만탄주 동부지역 결정('19.8)
- * 조코위 대통령은 후보지역들을 직접 답사하며 검토('19.5)
- (비용) 약 40조원(재정 7.7조원, 민간 32.3조원)
- (경과) 신수도 명칭 '누산타라'(Nusantara), 전담부처(장관급 기관) 신설
등 수도 이전 관련법 국회 통과('22.1)
- (일정) '24년부터 마스터 플랜에 따라 단계적 추진 계획
- * 정부핵심구역 56km², 신수도구역 567km², 신수도확장구역 4,000km² 순차개발

< 수도이전 위치 >



□ 배경

- 인니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 사업을 추진하며 우리 정부의 경험과 노하우 전수를 요청('19.6)하는 등 G2G 협력 희망
- 국토교통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간 “한국 -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및 개발에 대한 기술협력 업무협약(MOU)” 체결('19.11)

□ 주요 협력사업

【 계획수립 지원 】

- (K-City Network, KCN) 인도네시아 신수도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및 사업발굴 지원(1차, 완료), 공무원주택 시범단지 F/S(2차) 등 추진

[1차]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완료

[과업내용] 인니 신수도를 글로벌 스마트 시티로 개발하기 위한 정부핵심구역 기본·특화계획, 특화 솔루션 및 스마트 물·교통관리 등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제시

[2차] 공무원주택 시범단지 F/S 진행

[과업내용] 정부핵심구역 내 대통령궁 및 정부기관에 인접한 공무원주택 1,176 세대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, 공무원주택 컨셉 및 사업타당성 조사 시행

- (경제혁신파트너쉽프로그램, EIPP) 신수도 개발 종합계획, 자금 조달방안 등(1차, 완료), 신수도 개발·자금조달 계획 2차, 녹색도시·교통체계 및 에너지전환계획 등(2차) 추진 중

【 정부간 협력(MOU) 이행 】

- (협력관 파견) 인니 현지 동향 파악, 네트워크 형성 및 사업 협력 등을 위해 공공사업주택부에 협력관 파견*(행복청, LH)

* 행복도시 노하우 전수 등 자문, 공동 세미나, 공무원 초청연수 등 추진

- (초청연수) 인니 수도이전 관련 공무원 대상 한국의 노하우 공유 (총82명, 코로나로 온라인 교육)
- (고위급 협의) 장관급 회의(GICC 연계), 국장급 화상회의 등 협력